

2021 대한민국 헌혈공모전
동화 부문 우수상 수상작

모여라, 혈액단!

김경민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 왕국을 향해 등글고 하얀 얼굴에 붉은 물방울 모양 머리를 한 요정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요정의 손에는 요정의 머리 색과 똑 닮은 붉은색 하트 모양의 사랑봉이 들려있었어요. 한참을 날아가던 요정 앞에 '주다왕국'이라는 팻말과 함께 왕국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휴, 드디어 도착했네. 그럼 들어가 볼까?"

하지만 요정은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국의 입구 앞에서 하얗고 네모난 백혈구 병사들이 요정을 가로막았거든요.

"너는 누구냐? 바이러스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검은 콧수염이 멋들어지게 난 병사가 소리치는 말에 화들짝 놀란 요정이 말했어요.

"전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요정, 나눔이에요. 저는 바다왕국에서 왔어요. 바다왕국에는 주다 왕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요정? 네가 바이러스가 아니란 걸 어떻게 믿지?"

동글동글한 안경을 쓴 병사의 말에 고민하던 나눔이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사랑봉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사랑봉을 들어 올리며 말했죠.

"이걸 보세요. 만약 제가 바이러스라면 행복과 기쁨을 담은 이 사랑봉을 들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눔이의 말이 진짜임을 증명하듯 사랑봉은 반짝 빛이 났어요. 정말 사랑봉 안에 많은 행복과 기쁨이 들어있는 거 같아 보였어요. 나눔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콧수염 난 병사가 말했어요.

"좋아, 그럼 널 들여보내 주지. 대신 아직 네가 어떤 요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우리 대장님을 먼저 뵈는 게 좋겠어. 따라와."

안경을 쓴 병사의 뒤를 따라가던 나눔이의 앞에 다른 병사들과 확연히 다르게 두 눈에 씩씩함이 가득 담긴 백혈구가 보였어요.

"대장님, 여기 이 꼬마는 요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왕국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침입자는 아닌 것 같아 들여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얘기해 보지. 자네는 다시 일하러 가도 좋네."

안경을 쓴 병사는 늙름해 보이는 백혈구에게 나눔이를 간단하게 소개하곤 다시 바이러스의 침입을 지키러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을 나누는 요정, 나눔이라고 해요."

"반가워, 나는 백혈구들의 대장 백이라고 해. 우리 백혈구 병사들 때문에 놀랐다면 정말 미안해. 우리

왕국에 요정이 온 건 처음이라 다들 놀랐나 봐.”

“아니에요. 저야말로 나눔 일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서툰걸요. 그런데 백혈구들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하, 너 이번 일이 처음이구나? 나도 요정을 직접 본 건 처음이야. 아! 아까 들어보니 우리 왕국의 도움이 필요하했지? 그럼 일단 여기서 서 있지 말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때?”

“좋아요!”

막사 안으로 들어선 백이가 탁자 앞 의자에 앉자 나눔이도 따라 앉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백혈구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우리 백혈구들은 외부에서 바이러스 등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해. 굉장하지? 그래서 우리 대부분 씩씩해.”

백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봉이 없었다면 침입자로 오해받고 제거될 뻔했다니, 무시무시한 백이의 말에 나눔이는 속으로 오들오들 떨었더랬죠.

“그 신기한 요술봉은 뭐야? 언젠가 왕국으로 나눔을 설명하러 오는 요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지만, 요술봉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걸.”

백이의 말에 이번에는 나눔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랑봉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사랑봉이라고 해요. 이 안에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 들어있어요. 어려운 왕국을 만나면 이 사랑봉을 통해 희망을 주고 그 이웃을 돕기 위해 도와줄 다른 왕국들을 돌아다니는 게 제 역할이에요. 지금은 바다왕국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너를 믿고 들여보내 준거구나. 아직 능력을 쓰는 걸 보지 못했지만, 사랑봉에서 기쁨과 행복이 느껴져.”

“저도 아직 제대로 써보지 못했지만, 이 사랑봉을 통해 왕국의 왕의 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왕국에 온 건 주다왕국의 왕, 그러니까 주다의 꿈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야?”

“맞아요. 하지만 그 외에도 도움이 더 필요해요.”

백이는 도움에 관해서 더 물으려 했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막사로 빨강고동그란 적혈구가 들어왔거든요.

“백아, 나 왔어! 뭐 하고 있었어? 놀자!”

백이에게 말을 걸며 들어온 적혈구가 백이 옆에 나눔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으악, 넌 누구야?”

“안녕하세요, 전 이 왕국에 도움을 구하러 온 요정 나눔이라고 해요.”

나눔이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물었어요.

“음, 그러니까 너는 놀러 온 건 아니란 말이지? 나는 적이야. 보다시피 적혈구지.”

적혈구라는 적이의 말에 나눔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 적혈구이셨군요? 이 왕국에 오기 전 도움을 청하러 다른 왕국에 들렀을 때, 적혈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몰랐어요.”

“그래? 우린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아마 다들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놀다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바빠서 너와 못 만났나 봐.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혼자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적혈구가 집까지 데려다줘야 하거든.”

“그렇다면 집에 데려다주는 걸 빈혈이라고 하나요? 제가 그 왕국에 들렀을 때 다들 빈혈 사태라서 적혈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때문에 바다왕국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했어요.”

“뭐라고?”

나눔이의 말에 놀란 적이 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아까 백이의 자랑을 듣던 나눔이처럼 몸을 오들오들 떨었어요.

“빈혈은 적혈구가 왕국에 많이 없다는 걸 의미해. 왕이 편식하게 되면 빈혈이 오기도 하지.”

놀란 적이 대신 백이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없어진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운걸. 우리가 없어진다면 주다가 아플 거 아냐. 이렇게 주다를 걱정하는 우리를 알면 주다도 편식하지는 않을 텐데.”

백이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적이도 덧붙였어요.

“만약 저와 함께 왕의 꿈속에 들어간다면 편식에 대해서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눔이가 사랑봉을 꺼내 보이며 말하자 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주다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모든 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백혈구와 적혈구 대표 외에 혈소판과 혈장 대표도 모일 수 있을까요?”

“혈소판과 혈장?”

“네. 이 왕국에 혈액 마을의 구성원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눔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린 백이가 밖에 있던 병사를 불러 혈소판과 혈장의 대표를 데려오라 명령했어요. 아까 나눔이가 봤던 콧수염 난 병사가 멋들어지게 다듬은 콧수염을 휘날리며 각 대표를 데리러

뛰어나갔어요. 이윽고 혈소판의 대표 솔이와 혈장의 대표 짱이까지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럼 먼저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각자를 소개해주세요.”

“좋아, 그럼 나 먼저 할게. 나는 백이. 백혈구 대장이지. 난 누구보다 씩씩해.”

“안녕, 나는 적이. 적혈구 대표야. 산소랑 이산화탄소와 노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안녕, 나는 솔이야.”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한 솔이는 초록색의 둥근 몸에 뾰족뾰족한 뿔이 나 있는 혈소판의 대표였어요.

“혈소판은 어떤 일을 해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나눔이가 물었어요.

“응, 우리는 만약 누군가가 왕국 밖에서 우리 주다에게 상처입혀서 피가 나면 우리가 왕국 안에서 피를 진정시키는 일을 해.”

“어떻게 진정시키는데요?”

“우리 혈소판들이 서로를 안으면 상처에서 피가 나지 않게 막아 저.”

솔이의 말에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던 혈장 대표 짱이가 박수하며 일어났어요.

“서로 안아주는 방법 정말 좋다. 여럿이 모였을 때 힘을 합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나도 써봐야겠어. 참! 나는 혈장의 대표, 짱이야. 잘 부탁해.”

노란색의 네 잎 클로버 같은 몸의 짱이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혈장은 여럿이 모여서 단합해야 하는 일이 많나 봐요?”

“우리 왕국의 혈액 마을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혈장이거든.”

나눔이의 물음에 짱이가 대답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눔이가 사랑봉을 들어 올리며 모두의 주목을 이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먼저 요정 나눔이에요. 저는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왕국에는 이 사랑봉으로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고 이웃 왕국에 가서는 도움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랑봉은 나눔이가 마치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 반짝거렸어요.

“지금 바다왕국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도움은 여러분들이 줄 수 있어요.”

“아까 듣기로는 네가 그 사랑봉을 이용해서 주다의 꿈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던 거 같은데, 우린 뭘 도와주면 돼?”

백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나눔이가 말했어요.

“저는 주다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주다를 만나 도와달라고 설득해야 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주다를 설득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말은 우리가 너와 함께 주다의 꿈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맞아요. 제가 사랑봉을 휘두를 때 다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있으면 같이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꿈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왕을 설득해 주세요.”

“우리가 뭘 설득해야 한다는 거야?”

솔이가 물었어요.

“바다왕국은 혈액 마을의 구성원인 여러분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선 여러분들을 보내려는 주다의 의지가 필요해요.”

나눔이의 말에 모두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던 중 백이가 가장 먼저 적막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다가 우리를 보내야 한다고? 설마 우리의 직접적인 도움이라는 게 우리가 주다왕국을 떠나서 바다왕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

백이가 묻자 적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주다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주다를 두고 떠나라고?”

“나도 이때까지 주다를 위해 노력했어. 주다왕국을 떠나고 싶진 않아.”

솔이 역시 고개를 저으며 적이의 말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바다는 이대로 계속 아플지도 몰라요.”

“꼭 우리 도움이 아니더라도 바다가 아프지 않게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

짱이가 물었어요.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것만이 혈액이 필요한 왕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좋아. 난 너와 함께 주다를 설득하고 바다왕국으로 가겠어.”

백이는 결심하며 말했어요. 백이의 두 눈에는 나눔이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것처럼 씩씩함이 가득 담겨있었어요.

“나는 무작정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 반대하는 쪽의 의견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결정

하겠어.”

짱이가 말했어요. 가장 수가 많은 혈장을 대표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뭐야, 다들 주다왕국을 떠나도 정말 괜찮은 거야? 적이 너는 반대하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없으면 주다가 아플지도 몰라. 나눔이 너, 여기 오기 전에 빈혈 사태가 일어난 왕국에 간 적이 있다고 했지?”

솔이의 물음에 적이 대답했어요. 적은 반대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다왕국을 도와준다고 해서 주다가 빈혈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떠나도 주다도 무사하다고?”

“정말이에요. 헌혈 후 충분한 휴식만 취한다면 주다의 건강은 문제없을 거예요.”

나눔이의 말에 고민하던 짱이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찬성이야. 주다의 건강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러자 솔이가 말했어요.

“좋아, 그럼 적에만 찬성한다면 나도 찬성할게. 적이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어차피 모두가 찬성해야 주다를 설득시키는 데 좋은 거잖아.”

그러자 백이, 짱이, 나눔이의 시선이 일제히 적에게로 향했어요. 모두의 시선에도 곳곳하게 고개를 돌리던 적이 결국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주다가 아프지 않는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

“와!”

적이의 말에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어요. 사랑봉을 휘두르기 전 손을 마주 잡아주세요!”

다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둥글게 모여 손을 마주 잡았어요. 둥근 원 가운데 선 나눔이가 사랑봉을 휘두르며 외쳤어요.

“모여라, 혈액단!”

“여기가 주다 꿈속인 건가?”

주위를 둘러보던 짱이가 저 멀리 자신의 꿈속에서 놀고 있는 주다를 발견했어요.

“엇, 주다다!”

짱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주다도 혈액단을 발견했어요. 놀란 주다에게 나눔이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나눔이의 말을 듣던 주다가 사색이 되어 물었어요.

“잠시만 그럼 내 혈액을 바다라는 친구에게 주기 위해 헌혈을 하라는 소리야?”

“맞아요, 바다는 주다의 헌혈이 필요해요.”

“싫어! 피를 뽑는 건 무섭단 말이야.”

나눔이의 말에 주다가 핵 돌아섰어요. 나눔이가 주다를 설득하기 위해 다가서려는 순간 백이가 나눔이를 막아섰어요.

“나눔아, 주다는 우리가 설득할게.”

백이의 말에 나눔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안녕, 주다야. 네 몸에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네. 난 항상 네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던 백혈구, 백이야.”

“나쁜 바이러스를 막아?”

“응. 하지만 우린 네 몸에 들어오는 온갖 나쁜 건 다 막아도 주사는 막지 않아.”

“왜? 난 주사가 제일 싫은걸.”

“헌혈하기 위한 주사는 절대 네게 나쁜 게 아니거든.”

백이의 말에도 여전히 고개를 젓는 주다를 솔이가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주다야, 난 혈소판 솔이야. 우린 언제나 널 위하고 있어. 누군가 너에게 상처를 줘도 우리가 널 꼭 껴안으면 너는 곧 괜찮아질 거야.”

품 안에 있는 솔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고개를 들자 주다 앞에는 빙그레 웃음을 짓고 있는 짱이가 보였어요.

“안녕, 난 혈장 짱이야. 네 몸속에는 우리 혈장이 정말 많아. 그리고 이 많은 혈장은 전부 네 편이야. 네가 잘되길 바라는 네 편 말이야.”

“내가 잘되길 바라는 내 편? 그럼 왜 내가 싫어하는 주사를 맞아야 하는 헌혈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적이가 말했어요.

“나는 적혈구 적이야. 나도 네가 아픈 건 싫어. 그래서 널 설득시키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지금 너처럼 헌혈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언젠가 네가 정말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너처럼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거야.”

적이의 말이 끝나도 주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주다의 모습에 나눔이는 다른 왕국의 왕을 설득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였어요!

“알겠어. 내가 꿈에서 깨면 바로 헌혈하러 갈게.”

결심한 주다의 두 눈에는 백이처럼 씩씩함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온화한 짱이와 닮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제야 내내 긴장하고 있던 나눔이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마주한 혈액단과 주다는 밤새도록 꿈속에서 서로의 건강을 약속하며 놀았어요.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아침 일찍 눈을 뜬 주다는 방금까지 꾸 꿈은 절대 그냥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백이에겐 씩씩한 사람으로 자라길, 적이에겐 편식하지 않길, 솔이에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꼭 안아주길, 짱이에겐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기를 꿈에서 깨기 전 약속했거든요. 주다의 집 창밖에는 다시 행복과 기쁨을 나누러 여행을 떠나는 나눔이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나눔이와 혈액단 친구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헌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요!